

2022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경 위 직

제 1 과목 : 국 어

제 2 과목 : 영 어

제 3 과목 : 헌 법

제 4 과목 : 한 국 사

제 5 과목 : 행 정 법 총 론

○ 응시번호 :

○ 성 명 :

시험시간 및 향후일정 안내

- ❖ 시험 시간 : 14 : 00 ~ 15 : 40
- ❖ 정답 가안 발표 : 2022. 8. 13.(토) 18:00
- ❖ 정답 이의 제기 : 2022. 8. 16.(화) ~ 8. 17.(수) 17:00
-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2022. 9. 16.(금), 국회채용시스템

국 회 사 무 처

국회채용시스템 : <http://gosi.assembly.go.kr>

국 어

1. 밑줄 친 부분의 맞춤법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붉은빛을 띤 장미가 아름답다.
- ② 얼음이 얼어서 넘어지기 십상이다.
- ③ 지난 일을 다시 생각해 보니 싫고 분했다.
- ④ 그녀는 예의가 발라서 보기 좋다.
- ⑤ 그는 분노를 삭히려고 노력했다.

2.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그가V올V듯도V하다.
- ② 그가V언제V오는V지V확인했다.
- ③ 네가V그V일을V했을V리가V없다.
- ④ 서울과V인천V간V국도를V이용한다.
- ⑤ 열V명V내지V스무V명의V학생들이V참석했다.

3. 밑줄 친 ㉠과 ㉡의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 단어 내의 음운 변동은 여러 유형이 함께 나타날 수도 있다.
㉠따뜻하다[따뜨타다]와 ㉡샷일[샷닐]에 일어나는 음운 변동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한다.

- ① ㉠과 ㉡ 중 ㉠에만 음운의 탈락 현상이 일어난다.
- ② ㉠과 ㉡ 중 ㉠에만 음운의 첨가 현상이 일어난다.
- ③ ㉠과 ㉡ 모두 음운의 축약 현상이 일어난다.
- ④ ㉠과 ㉡ 모두 음운의 대치 현상이 일어난다.
- ⑤ ㉠과 ㉡ 모두 음운 변동을 거치며 음운의 개수가 줄어든다.

4. 국어 문법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어미가 발달되어 있다.
- ② 이중 주어 구문이 발달되어 있다.
- ③ 비교적 어순이 자유로운 언어에 속한다.
- ④ 공손성을 표현하는 수단이 발달했다.
- ⑤ 꾸미는 말이 꾸밈을 받는 말 뒤에 온다.

5. 다음 시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화(梨花)에 월백(月白)하고 은한(銀漢)이 삼경(三更)인 제
일지춘심(一枝春心)을 자규(子規)야 알라마난
다정(多情)도 병(病)인 양(樣)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 ① ‘이화’는 배나무 꽃을 말한다.
- ② ‘은한’은 은하수를 말한다.
- ③ ‘삼경’은 해 질 무렵의 시간을 말한다.
- ④ ‘일지’는 한 나뭇가지를 말한다.
- ⑤ ‘자규’는 소쩍새를 말한다.

6. 다음 시의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흐르는 것이 물뿐이라
우리가 저와 같아서
강변에 나가 삼을 씻으며
거기 슬픔도 퍼다 버린다
일이 끝나 저물어
㉠스스로 깊어 가는 강을 보며
쭈그러 앉아 담배나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
삼자루에 맡긴 한 생애가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샛강 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뜨는구나
우리가 저와 같아서
흐르는 물에 삼을 씻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 정희성, 「저문 강에 삼을 씻고」 -

- ① 자연의 자정 작용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한다.
- ② 현재의 삶에 대한 적극적인 극복 의지를 드러낸다.
- ③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이 깊어지는 상황을 나타낸다.
- ④ 설의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무기력함을 성찰한다.
- ⑤ 현실의 갈등이 흐르는 물과 같이 해소되기를 염원한다.

7. 다음 글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과거는 현재를 통해서 바라보아야 하며, 개인은 절대 사회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서적을 읽는다는 것은 죽은 과거의 사실을 살펴본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과거의 역사를 통해 통찰해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러한 일련의 과정의 무대가 되는 곳이 바로 사회라는 것과 사회는 하나의 생명체처럼 살아서 흘러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고려해볼 때, 역사 서적을 읽을 때 던져야 하는 가장 큰 질문은 ㉠ 와 같은 것이어야 한다.

인간은 사회적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인간답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과거의 누군가의 삶들을 통해 현재의 삶을 수정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유익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① ‘역사적 사실이 다양한 관점에서 기술되었는가?’
- ② ‘역사가의 임무는 무엇이며, 역사는 어떻게 기술되어야 하는가?’
- ③ ‘왜 이런 역사적 사실이 발생했고, 그 이후의 일들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 ④ ‘역사 서적에 기술된 역사적 사실이 과연 진실인가? 어떤 조작된 요소는 없는가?’
- ⑤ ‘역사적 사실과 그것에 대한 역사가의 해석은 나의 삶과 어떻게 관련되는가?’

8. ㉠, ㉡의 문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나는 그 사람이 정직함을 믿는다.
㉡ 그녀는 내가 모르는 노래를 불렀다.

- ① ㉠은 부사절이 안겨 있는 문장이다.
- ② ㉠의 안긴문장에는 서술어가 생략되어 있다.
- ③ ㉡은 명사절이 안겨 있는 문장이다.
- ④ ㉡의 안긴문장에는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다.
- ⑤ ㉠과 ㉡은 모두 서술절을 포함하고 있다.

9. 다음 글에서 ‘루스벨트’가 말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루스벨트는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에 해군에서 요직을 맡고 있었다. 어느 날 친구가 카리브해에 있는 섬의 잠수함 기지 건설계획을 그에게 물었다. 이 계획은 군사기밀이었으므로 루스벨트는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정보를 공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직설적으로 거절하면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이냐며 따지고 들 게 분명했다. 자신을 무시한다며 다시 보지 말자고 선언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루스벨트는 긴장하는 척하면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비밀 지킬 수 있어?”

친구는 기지 계획을 들을 수 있다는 희망에 큰 소리로 답했다.

“물론이지!”

이에 루스벨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나도 그래.”

루스벨트는 친구의 불합리한 요구를 교묘하게 거절하면서 친구의 체면을 지켰다.

- ① 인정에 호소하는 태도로 상대를 설득하고 있다.
- ② 재치 있는 답변으로 곤란한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
- ③ 상대에 대한 공감의 태도를 보이면서 상대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
- ④ 상대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여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 ⑤ 상대를 직접적으로 비판하여 상대가 잘못을 깨닫게 만드는 화법을 쓰고 있다.

10. 한자 성어와 뜻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股肱之臣: 다리와 팔과 같이 중요한 신하.
- ② 狐假虎威: 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림.
- ③ 要領不得: 말이나 글의 목적이나 의미가 분명치 않음.
- ④ 牽強附會: 세상과 타협하고 권력에 굴복함.
- ⑤ 肝膽相照: 서로 속마음을 털어놓고 친하게 사귀.

11. 다음 (가)~(마)를 문맥에 맞게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가) 선천성 면역은 다시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제1 방어선으로서 피부, 점막, 정상미생물상이고, 다른 하나는 제2 방어선으로서 식세포, 염증, 발열, 항미생물 물질 등입니다.
- (나) 면역은 크게 선천성(비특이적) 면역과 후천성(특이적) 면역으로 나뉩니다. 선천성과 후천성은 말 그대로 면역을 태어날 때부터 완비했느냐, 살아가면서 습득했느냐에 따라 구분됩니다.
- (다) 다른 하나는 세포성 면역으로, T세포에 의존하며 세포 내부에 침투한 병원체를 제거합니다.
- (라) 후천성 면역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체액성(항체 매개) 면역으로, 항원에 대항할 수 있는 항체를 내뿜는 면역 방식입니다. 체액에 엄청난 양의 항체를 뿌리는 세포는 B세포입니다.
- (마) T세포는 자기 자신의 세포가 비자기로 돌변한 것, 예컨대 암세포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T세포는 면역을 활성화하기도 억제하기도 합니다.

- ① (가) - (라) - (다) - (마) - (나)
② (나) - (가) - (다) - (마) - (라)
③ (나) - (가) - (라) - (다) - (마)
④ (나) - (라) - (가) - (마) - (다)
⑤ (라) - (다) - (나) - (마) - (가)

12. ㉠~㉣ 중 <보기>의 문장이 들어가기에 적절한 곳은?

_____ <보 기> _____

그리하여 가축과 그 고기를 먹는 인간의 건강뿐만 아니라, 세계 전역의 농지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는 것이다.

곡물 사료는 비단 가축뿐만 아니라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구조적인 폭력을 행사한다. ㉠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쇠고기를 비롯한 육류는 곡식에 비해서 낭비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식품이다. ㉡ 오늘날 1인분의 쇠고기 생산을 위해서 20인분의 곡물이 투입되고 있고, 1칼로리의 쇠고기를 생산하는 데 보통 35칼로리의 석유가 소모되고 있다. ㉢ 그 결과는 전 세계적으로 10억의 비만 인구와 10억의 기아 인구의 공존이라는 비극적 현실이다. ㉣ 또한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사료용 곡물 재배에는 살충제가 무제한적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 오늘날 육류 소비가 늘어가는 것과 병행해서 아까운 열대 우림이 끝없이 훼손되고,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토양 오염 및 토지 열화 현상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3.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

묘사란 원래 그린다는 뜻의 회화 용어다.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태를 그림 그리듯 그대로 그려냄을 가리킨다. 역사나 학술처럼 조리를 세워 끝어나가는 것은 기술이지 묘사는 아니다. 실경(實景), 실황(實況)을 보여주어 독자로 하여금 그 경지에 스스로 들고, 분위기까지 스스로 맛보게 하기 위한 표현이 묘사다.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아름답구나!’ 하는 것은 자기의 심리다. 자기의 심리인 ‘아름답구나!’만 써가지고는, 독자는 아무 아름다움도 느끼지 못한다. 독자에게도 그런 심리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 풍경이 아름다운 까닭을, 즉 하늘, 구름, 산, 내, 나무, 돌 등 풍경의 재료를 풍경대로 조합해서 문장으로 표현해주어야 독자도 비로소 작자와 동일한 경험을 그 문장에서 얻고 한가지로 ‘아름답구나!’ 하는 심리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제재의 현상을 문장으로 재현하는 것이 묘사다.

묘사를 할 때 명심해야 할 사항으로는 다음의 몇 가지가 있다. 첫째, 객관적일 것. 언제든지 냉정한 관찰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정연할 것. 시간적으로든 공간적으로든 순서가 있어야 전체 인상이 선명해지기 때문이다.

셋째, 사진을 찍는 것과는 달라야 할 것. 대상의 핵심과 특색은 취하되, 불필요한 것은 버려야 하기 때문이다.

- ① 묘사는 실경(實景)과 실황(實況)을 보여주는 것이다.
② 묘사는 객관적이어야 하므로 주관적인 심정을 표현할 수는 없다.
③ 질서정연하게 묘사할수록 대상은 분명하게 전달된다.
④ 대상을 제대로 묘사하기 위해서 대상의 모든 정보를 표현해야 할 필요는 없다.
⑤ 묘사는 제재의 현상을 문장으로 재현하는 것이다.

14. ㉠~㉣의 파생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어른스럽다, 슬기롭다
㉡ 끓이다, 높다
㉢ 짓밟다, 짓누르다
㉣ 착하다, 아름답다
㉤ 먹이, 덮개

- ① ㉠에서 어근의 품사와 파생어의 품사는 서로 다르다.
② ㉡에서 어근의 품사와 파생어의 품사는 서로 같다.
③ ㉢에서 접두사는 명사 어근에 붙어 ‘함부로’, ‘마구’의 뜻을 더한다.
④ ㉣은 홀로 쓰일 수 있는 명사에 접미사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⑤ ㉤에서 접미사는 형용사 어근에 붙어 명사를 파생한다.

15.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

자동화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사람이 하는 일이 줄어들고 공산품의 가격이 하락한다는 예측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사회일까?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으니 좋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산 공정의 합리적 발달 때문에 인간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결국 소비가 줄어드는 세상이 되는 것은 아닐지 걱정되기도 한다. 뉴스에서도 한번 크게 보도된 적이 있는데, 중국에서 종업원 규모가 만 명 되는 공장을 독일식의 ‘산업 4.0 시스템’을 적용해서 합리화했더니 종업원 수가 500명으로 줄었다고 했다. 그러면 나머지 9,500명은 어디로 갔겠는가 말이다.

인공지능이 대거 활약하게 되는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돼서 이런 일이 상품과 지식 생산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난다면 어찌 될 것인가. 어쨌건 상품이나 지식의 값은 싸지겠지만, 그것을 돈 주고 사는 소비자는 점점 없어져 버리는 사회가 될 수도 있다. 이는 분명히 우려할 만한 일이다.

과학 기술의 발전이 분명히 우리가 사는 사회를 더 괜찮은 사회,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드는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일하는 사람이 점점 없어진다는지 아니면 조금 다른 용어로 사회의 불평등이 점점 심해져서 아주 많은 돈을 버는 소수의 사람들과 일자리가 없는 다수의 사람들로 세상이 양극화될 가능성을 크게 하는 측면도 있다. 그야말로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의 공존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주목할 책이 1516년 출간된 영국 작가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이다. 이 책이 선구적인 이유는 유토피아(utopia)라는 말이 여기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모어는 ‘좋은 곳’이라는 뜻의 ‘eu-topia’와 ‘아무 데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는 뜻의 ‘ou-topia’를 동시에 나타내는 중의적 개념으로 유토피아라는 말을 만들었는데, 이때부터 유토피아는 존재하지 않는 이상향을 뜻하게 되었다.

디스토피아(dystopia)는 유토피아의 반대말로, 상당히 끔찍한 미래의 어떤 사회를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다. 접두어 ‘dys’는 ‘나쁜’, ‘고된’이란 뜻이다. 디스토피아는 19세기에 만들어진 말로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표현이다. 산업혁명 이후에 사회적 불평등이 확산되고 기계화로 인한 인간성 상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디스토피아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고 널리 사용되었다.

- ① 인공지능 기술은 유토피아적 세계와 디스토피아적 세계의 가능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기술이다.
- ② ‘디스토피아’는 사회적 불평등이 확산되고 인간성 상실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만들어진 용어이다.
- ③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될 경우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 현상은 점점 심해질 수 있다.
- ④ ‘유토피아’는 토머스 모어의 책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표현이다.
- ⑤ ‘유토피아’는 ‘디스토피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표현이다.

16.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

몸을 닦는 일(修身)은 효도와 우애로써 근본을 삼아야 한다. 효도와 우애에 자기 본분을 다하지 않으면 비록 학식이 고명하고 문체가 찬란하고 아름답다 하더라도 흠담에다 아름답게 색칠해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자기 몸을 이미 엄정하게 닦았다면 그가 사귀는 벗도 자연히 단정한 사람일 것이므로 같은 기질로써 인생의 목표가 비슷하게 되어 친구 고르는 일에 특별히 힘쓰지 않아도 된다.

이 늙은 아버가 세상살이를 오래 경험하였고 또 어렵고 험난한 일을 고루 겪어보아서 사람들의 심리를 두루 알고 있다. 무릇 천륜에 야박한 사람은 가까이해서도 안 되고 믿어서도 안 되며, 비록 충직하고 인정 있고 부지런하고 재빠르게 온 정성을 다하여 나를 섬기더라도 절대로 가까이해서는 안 된다. 이들은 끝내 은혜를 배반하고 의리를 잊어먹고 아침에는 따듯이 대해주다가도 저녁에는 차갑게 변하고 만다.

대체로 이 세상에 깊은 은혜와 두터운 의리는 부모형제보다 더한 것이 없는데 부모형제를 그처럼 가볍게 버리는 사람이 벗들에게 어떠하리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는 이치다. 너희는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두도록 하거라. 무릇 불효자는 가까이 하지 말고 형제끼리 우애가 깊지 못한 사람도 가까이해서는 안 된다.

- ① 자기 몸을 엄정하게 닦는 것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 ② 효와 우애의 덕목을 충실하게 지키는 사람을 친구로 삼기를 권하고 있다.
- ③ 학문에 깊이가 있고 충직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곁에 두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 ④ 좋은 친구를 사귀려면 먼저 스스로가 단정하고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 ⑤ 어떤 일이 있어도 천륜을 어기는 사람은 경계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17. 밑줄 친 ㉠, ㉡에 해당하는 예로 옳은 것은?

어휘는 ㉠물리적 공간과 관련된 중심적 의미를 지니는 것이 ㉡추상화되어 주변적 의미도 지니게 되는 경우가 있다.

- | ㉠ | ㉡ |
|-----------------------------|-------------------------|
| ① 물은 <u>낮은</u> 지대로 흐른다. |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u>낮다</u> . |
| ② 내 <u>좁은</u> 소견을 말씀드렸다. | 마음이 <u>좁아서</u> 는 곤란하다. |
| ③ 우리는 <u>넓은</u> 공터에 모였다. | 우리집 마당은 꽤 <u>넓다</u> . |
| ④ 그녀는 성공할 가능성이 <u>크다</u> . | 힘든 만큼 기쁨도 <u>큰</u> 법이다. |
| ⑤ 형의 말은 거의 사실에 <u>가깝다</u> . | 집결 장소는 <u>가까운</u> 곳이다. |

18.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

이때에 뿅뿅 소리가 웅아 소리로 변하였다. 개똥이가 물었던 젖을 빼어 놓고 운다. 운대도 온 얼굴을 찡그려 붙여서 운다는 표정을 할 뿐이다. 웅아 소리도 입에서 나는 게 아니고 마치 뱃속에서 나는 듯하였다. 울다가 울다가 목도 잠겼고 또 울 기운조차 시진한 것 같다.

발로 차도 그 보람이 없는 걸 보자 남편은 아내의 머리맡으로 달려들어 그야말로 까치집 같은 환자의 머리를 꺼들어 흔들며,

“이년아, 말을 해, 말을! 입이 붙었어, 이 오라질 년!”

“.....”

“으응, 이것 봐, 아무 말이 없네.”

“.....”

“이년아, 죽었던 말이나, 왜 말이 없어.”

“.....”

“으응, 또 대답이 없네. 정말 죽었나버이.”

이러다가 누운 이의 흰 창을 덮은, 위로 치뜬 눈을 알아보자마자,

“이 눈깔! 이 눈깔! 왜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천장만 보느냐, 응.”

하는 말끝엔 목이 메었다. 그러자 산 사람의 눈에서 떨어진 닭의 똥 같은 눈물이 죽은 이의 뺨뺨한 얼굴을 어롱어롱 적시었다. 문득 김 침지는 미친 듯이 제 얼굴을 죽은 이의 얼굴에 한테 비비대며 중얼거렸다.

“설령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왜 먹지를 못하니…….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 현진건, 「운수 좋은 날」에서 -

- ① 반어적 기법이 나타난다.
- ② 대화를 통해 등장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
- ③ 비속어를 사용하여 인물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
- ④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표현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⑤ ‘설령탕’은 비극적 상황을 강조하는 소재이다.

19. 외래어 표기법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프로포즈(propose)
- ② 플랫폼(platform)
- ③ 레이다(radar)
- ④ 장르(genre)
- ⑤ 배지(badge)

20.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옳은 것은?

“아니야, S병원으로 가.”

철호는 갑자기 아내의 죽음을 생각했던 것이었다. 운전수는 다시 획 핸들을 이쪽으로 틀었다. 운전수 옆에 앉아 있는 조수 애가 한 번 철호를 돌아다보았다. 철호는 뒷자리 한구석에 가서 몸을 틀어박은 채 고개를 뒤로 젖히고 눈을 감고 있었다. 차는 한국은행 앞 로터리를 돌고 있었다. 그때 또 뒤에서 철호가 소리를 질렀다.

“아니야, X경찰서로 가.”

눈을 감고 있는 철호는 생각하는 것이었다. 아내는 이미 죽었는데 하고,

이번에는 다행히 차의 방향을 바꿀 필요가 없었다. 그냥 달렸다.

“X경찰서 앞입니다.”

철호는 눈을 떴다. 상반신을 벌떡 일으켰다. 그러나 곧 털썩 뒤로 기대고 쓰러져버렸다.

“아니야, 가.”

“X경찰섭니다. 손님.”

조수 애가 뒤로 몸을 틀어 돌리고 말했다.

“가자.”

철호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어디로 갑니까?”

“글쎄, 가!”

“하 참, 딱한 아저씨네.”

“.....”

“취했나?”

운전수가 힐끔 조수 애를 쳐다보았다.

“그런가 봐요.”

“어쩌다 오발탄(誤發彈) 같은 손님이 걸렸어. 자기 갈 곳도 모르게.”

- 이범선, 「오발탄」에서 -

- ① ‘철호’는 삶의 의지를 점차 회복하고 있다.
- ② ‘운전수’는 ‘철호’에게 공감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③ ‘철호’와 ‘운전수’ 사이의 계급 차이가 잘 드러난다.
- ④ ‘철호’는 목적지를 정하지 못한 상태이다.
- ⑤ ‘S병원’과 ‘X경찰서’는 ‘철호’가 도달하지 못하는 이상향이다.

※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8 ~ 9)

8. The whole issue about life on other worlds ①begs the question: What is life, and how would we recognize it? Certainly, living things are made of cells (or a cell) and share three critical processes that make them ②alive. They ingest energy, excrete waste energy, and pass on their genes through reproduction. But they also respond ③to their environments. They maintain homeostasis, or internal balance. They evolve and adapt. Some living things even have evolved to the point ④which they can walk and think about the universe that surrounds them. We are literally products of the universe. Most of the atoms and molecules in our bodies were created in the engines of stars, and the energy we receive that enables life ⑤comes from our star: the Sun.

9. Validity is the most important consideration in test evaluation. The concept refers to the appropriateness, meaningfulness, and usefulness of the specific inferences ①made from test scores. Test validation is the process of accumulating evidence to back up such inferences. A variety of inferences may be made from scores produced by a ②given test, and there are many ways of accumulating evidence to ③support any particular inference. Validity, however, is a unitary concept. Although evidence may be accumulated in many ways, validity always refers to the degree to which that evidence supports the inferences that ④is made from the scores. The inferences ⑤regarding specific uses of a test are validated, not the test itself.

10.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단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Databases provided an ①efficient way to store and search for data. Organized into fields of information, the database enabled marketers to rank or select various groups of individuals from its master list of customers—a practice called “modeling.” Through this process, ②more mailings or calls needed to be made, resulting in a higher response rate and lower costs. In addition to isolating a company’s most ③profitable customers, marketers studied them, profiled them, and then used that profile to find ④similar customers. This, of course, required not only information about existing customers, but the collection of data about ⑤prospective customers as well.

11.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Despite such losses, Germany as a country is rich, but a recent study from the European Central Bank suggests that the typical German household is not. Astonishingly, the median household’s net assets, at €51,400, are less than those of the typical Italian, Spanish or even Greek household. These figures need careful interpretation. Households in Germany are smaller than in those countries, and their average is dragged down by the east, where 20 years ago no one had any assets to speak of. Moreover, the figures do not include pension promises. But the main reason for the poor showing is that far fewer people than in other European countries own their homes. Most households rent, and the housing stock is owned by a relatively small number of people, so Germany ends up with the most unequal distribution of household wealth in the euro zone.

- ① 전형적인 독일 가구가 부유하다는 최근 연구 결과가 있다.
 ② 한 연구에 따르면 전형적인 스페인 가구의 순자산은 독일 중위 가구의 순자산을 능가한다.
 ③ 유럽중앙은행의 연구가 제시한 수치는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
 ④ 독일의 경우 자신의 집을 소유한 사람의 수는 다른 유럽 국가보다 적다.
 ⑤ 가구 재산의 분배에 있어 독일은 유로존에서 가장 불평등하다.

12. 글의 흐름상 가장 어색한 문장은?

Now that we have some understanding of how language works, we can go back and try and answer the question of whether any animals have a true language. ①According to many leading scientists in the field, the answer is: maybe. Most scientists agree that human language is clearly the most complex, and that no other animal has a communication system that comes close. ②Many forms of animal communication do have some of the elements of human language. Some scientists believe that certain animals, such as primates and marine mammals, do use a type of language. ③For example, vervet monkeys have different sounds for different predators. When an alarm call is given, the monkeys know whether they should be on the lookout for an eagle, leopard, or snake. ④Monkeys aren’t the only land mammals that have a complex communication system with elements of human language in it. ⑤These monkeys are using arbitrary sounds that have agreed-upon meanings. This is a key element of language.

※ 밑줄 친 (A)와 (B)에 들어갈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3 ~ 14)

13. A ‘cover’ is typically defined as a recording of a song that was first recorded by someone else. Something like this is given in many dictionaries and by some scholars. (A), Albin Zak provides a glossary entry defining a ‘cover version’ as “a recording of a song that has been recorded previously by another artist.” Don Cusic writes, “the definition of a ‘cover’ song is one that has been recorded before.” Consider the song ‘Let It Be,’ written by John Lennon and Paul McCartney. Their band, the Beatles, had a hit with it when they released their version in 1970. (B), the first released recording of the song—by a few months—was by Aretha Franklin. A website which generates its descriptions automatically labels the Beatles’ version as a cover of Franklin’s, and that is just what the usual definition would suggest.

- | | (A) | (B) |
|---|--------------|--------------|
| ① | For instance | Therefore |
| ② | In addition | Nevertheless |
| ③ | For example | However |
| ④ | For example | Consequently |
| ⑤ | Moreover | However |

14. As the scale of economic activity has proceeded steadily upward, the scope of environmental problems triggered by that activity has transcended both (A) and (B) boundaries. When the environmental problems were smaller in scale, the nation-state used to be a sufficient form of political organization for resolving them, but is that still the case? Whereas each generation used to have the luxury of being able to satisfy its own needs without worrying about the needs of generations to come, intergenerational effects are now more prominent. Solving problems such as poverty, climate change, ozone depletion, and the loss of biodiversity requires international cooperation. Because future generations cannot speak for themselves, the current generation must speak for them. Current policies must incorporate our obligation to future generations, however difficult or imperfect that incorporation might prove to be.

- | | (A) | (B) |
|---|---------------|---------------|
| ① | intercultural | economic |
| ② | geographic | generational |
| ③ | political | sociocultural |
| ④ | ecological | ethical |
| ⑤ | environmental | behavioral |

15. 밑줄 친 (A), (B), (C)에 들어갈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Why did communicative sound take so long to evolve? Bacterial and single-celled life existed for three billion years with no known sonic signals. Although all these cells could sense water motions and vibrations, none reached out to (A) with sound. The first three hundred million years of animal evolution, too, seem to have lacked any communicative signals. No known fossil from this time has a rasp or other sound-making structure. The expert paleontologists (B) advice I sought all said that they knew of no physical evidence of sound-making structures from animals until the first cricket-and cicada-like insects evolved. Of course, the fossil record is incomplete and some sound-making structures, such as the swim bladders of fish, leave (C) or no trace in rock, and so we hear imperfectly across these great stretches of time.

- | | (A) | (B) | (C) |
|---|--------|-------|----------|
| ① | other | whose | a little |
| ② | other | what | little |
| ③ | others | whose | a little |
| ④ | others | what | a little |
| ⑤ | others | whose | little |

16.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ating at home is the norm for most people on most days, yet traditions of eating out go back centuries, and the practice is typical. The French do not eat outside of the home as frequently as residents of some nations with a comparable standard of living, such as the United Kingdom. Nonetheless, the trend to take meals outside of the home increases perceptibly in France, if not as quickly as in some affluent nations. Between 1970 and 1990, household spending on eating out increased 0.25 percent, and expenditure for food to be eaten at home fell by a full 7 percent. An estimate from 2004 calculated 9 billion meals out taken annually. Of these people ate 3.7 billion meals in cafeterias and other collective settings and 4.6 billion in commercial restaurants, from fine restaurants to fast-food restaurants and chains.

- ① Gorgeous Restaurants in Europe
- ② Fast-food Chains in France
- ③ Traditional Food of France
- ④ Typical French Food
- ⑤ Eating Out in France

17.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Glass Beach was created by accident. Beginning in 1906, people were permitted to throw away their garbage in the ocean near the city. People threw away glass bottles, appliances, and even cars. In 1967, the local government made it illegal to throw away trash in the water. After this, there were many cleanup efforts to recycle the metal and the other non-biodegradable waste. However, most of the glass had already been broken into tiny pieces. The glass was too difficult to remove, so it was left in the water. Over time, the pounding waves caused the rough pieces of glass to become smooth. These green, white, and brown pieces of smooth glass began washing up on shore, creating Glass Beach.

- ① Glass Beach는 의도적으로 만들어졌다.
- ② 정부는 1906년에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금지했다.
- ③ 금속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 ④ 사람들은 바다에 남겨진 유리조각을 남김없이 치웠다.
- ⑤ 거대한 유리조각들이 Glass Beach를 관광명소로 만들었다.

18. 주어진 글 사이에 들어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Some visual displays are meant only for members of an animal's own species. These include mating rituals and signals that tell a group when to move to a new location. Have you ever noticed that when a flock of birds takes off, they often all leave together?

- (A) The only difference is that instead of using sound, one of the more dominant birds will signal to the rest of the birds using an action called an intention movement.
- (B) In a typical "take off" signal, one bird will raise its wings and lift off the ground a few inches.
- (C) It's almost as if one of them said, "Let's go." In fact, this is exactly what happens.

Seeing this, the birds around it will pick up the signal and pass it to the other members of the group. Within a few seconds, the whole flock lifts off and heads into the sky.

- ① (A) - (C) - (B)
- ② (B) - (A) - (C)
- ③ (B) - (C) - (A)
- ④ (C) - (A) - (B)
- ⑤ (C) - (B) - (A)

※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9 ~ 20)

19. What counts as private information or as intrusion can vary among cultures and even within subcultures of a particular society. Whether an act is regarded as intrusion or comfortable familiarity depends on _____. For example, knocking on doors and waiting to be granted permission to enter is one way that privacy is respected in some cultures. In other cultures, it is acceptable for people to walk unannounced through entranceways or to enter a friend's or family member's home without knocking.

- ① the circumstances and shared understandings of those involved
- ②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associated with privacy
- ③ people's ability to live a life without being interfered
- ④ the individual's control over personal information
- ⑤ the efficacy of the law to protect privacy

20. Researchers at Princeton University and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found that students who handwrote lecture notes rather than typing them out retained more of the information precisely because they were slowed down. A quick keyboard transcription doesn't require critical thinking. The slower process of handwriting means not everything will be captured verbatim; instead, the brain is forced to exert more effort to capture the essence of what's important, thus _____. Slowing down doesn't mean being slow; it just means taking a few minutes to absorb what we are seeing. Details, patterns, and relationships take time to register. Nuances and new information can be missed if we rush past them.

- ① distracting our attention for more information
- ② speeding up the whole process of imagination
- ③ assigning our mental resources to various tasks
- ④ inundating the memory with too much information
- ⑤ committing the information more effectively to memory

헌법

1.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 ③ 의원의 발언시간은 1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장이 정한다. 이런 발언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무제한토론을 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국회의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는 소관 사항 외의 안전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2. 우리 헌법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사를 담당하였다.
- ②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에서는 대통령 직선제를 채택하였다.
- ③ 1972년 제7차 개정헌법에서는 대법원이 위헌법률심사와 정당 해산심판을 담당하였다.
- ④ 1948년 제헌헌법에서는 사회정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의 경제상 자유를 보장하였다.
- ⑤ 1987년 제9차 개정헌법에서는 근로자의 적정임금 보장, 재외국민 보호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형사보상청구권을 피의자까지 확대 인정하였다.

3. 신체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관으로 하여금 미결구금일수를 형기에 산입하되, 그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산입하지 않을 수 있게 허용하는 형법 규정은 무죄 추정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 등을 위배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② 진술거부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진술이란 형사상 자신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진술이므로 범죄의 성립과 양형에서의 불리한 사실 등을 말하는 것이며, 그 진술내용이 자기의 형사책임에 관련되는 것일 것을 전제로 한다.
- ③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마약류 관련 수형자에 대하여 소변을 받아 제출하도록 한 것은, 강제처분으로 영장주의의 원칙이 적용된다.
- ④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는 변호인을 선임하고, 변호인과 접견하며, 변호인의 조언과 상담을 받고, 변호인을 통해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들을 준비하고 행사하는 것 등이 모두 포함된다.
- 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의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은 형사처벌에 대신하여 부과되는 것으로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게 여가시간을 박탈하여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4. 선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방송에서 한국수화언어 또는 자막의 방영을 재량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청각장애인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1인일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해당 후보자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당선자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해당 선거인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③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대해 투표 보조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 반드시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 하여서만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해당 선거인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④ 1년 이상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해당 선거인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⑤ 지역농협은 공법인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장을 선출하거나 조합장으로 선출될 권리,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거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5. 감사원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감사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 ② 감사위원회회의는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감사원은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해당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 또는 자료를 제출한 기관의 장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감사원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서 감찰할 수 있다.
- ⑤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6.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헌법재판소는 당사자의 신청을 기다려 증거조사를 하고,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는 없다.
- ④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및 헌법소원의 심판은 원칙적으로 구두변론에 의한다.
- ⑤ 심판의 변론과 서면심리,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7.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안경사 면허를 가진 자연인에게만 안경업소의 개설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② 시각장애인에 한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③ 일반게임제공업자 등이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일반게임제공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④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연인의 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것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⑤ 의료인이 아닌 자의 문신시술업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비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8. 정당설립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헌법 제8조제1항 정당설립의 자유는 헌법 제8조 전체의 규정 속에서 유기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헌법 제8조제4항에서 정당해산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설립의 자유에 정당 존속의 자유와 정당활동의 자유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 ㄴ. 정당설립의 자유는 등록된 정당에게만 인정되는 기본권이므로 등록이 취소되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실체만을 가지고 있는 정당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 ㄷ.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제거하려는 정당도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이 있기까지는 두터운 정당설립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 정당이다.
- ㄹ. 정당등록요건으로 “5 이상의 시·도당과 각 시·도당 1,000명 이상의 당원”을 정한 규정은 국민의 정당설립의 자유에 어느 정도 제한을 가한다. 그러나 이는 “상당한 기간 또는 계속 해서”, “상당한 지역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헌법상 정당의 개념표지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헌법적으로 정당화된다.
- ㅁ.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ㅁ
- ③ ㄱ, ㄷ, ㅁ
- ④ ㄴ, ㄷ, ㄹ
- ⑤ ㄷ, ㄹ, ㅁ

9.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 ②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 ③ 제1국민역에 편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야 국적이탈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④ 부계혈통주의 원칙은 출생한 당시 자녀의 국적을 부의 국적에만 맞추고 모의 국적은 단지 보충적인 의미만을 부여하는 차별을 의미하므로 위헌이다.
- 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반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10.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존속상해치사죄와 같은 범죄행위는 헌법상 보호되는 사생활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중처벌하는 것이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신의 인격권이나 명예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해명을 하는 행위는 사생활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범주를 벗어난 행위라고 볼 것이다.
- ③ 변호사에게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 규정은 헌법상 필요한 부분을 넘어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
- ④ 교도소장이 수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실시한 거실 검사 행위는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수형자의 교화·개선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물품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수형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 ⑤ 피고인이나 변호인에 의한 공판정에서의 녹취는 진술인의 인격권 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를 수반하고, 실체적 진실발견 등 다른 법익과 충돌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녹취를 금지해야 할 필요성이 녹취를 허용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녹취를 금지 또는 제한함이 타당하다.

11.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동일하나 대법원장은 중임할 수 없고, 대법관은 연임할 수 있다.
-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의 직(職)에 있던 40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 ④ 판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 ⑤ 대법관회의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갖고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12. 국회의 회의와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②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 ③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⑤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13.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한정되기 때문에 조약과 긴급명령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② 폐지된 법률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③ 헌법규정도 위헌제청의 적법한 대상이 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⑤ 법원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이 재판의 전제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당해 법원과 달리 판단할 수 없다.

14. 근로의 권리와 근로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고용 허가를 받아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 보험금을 출국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
- ㄴ.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여가를 부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인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권리는 근로의 권리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 ㄷ. 교원은 학생들에 대한 지도·교육이라는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받는 임금·급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므로 근로자에 해당한다.
- ㄹ. 단결권은 개별 근로자가 노동조합 등 근로자단체를 조직하거나 그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개별적 단결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단체가 존립하고 활동할 수 있는 것은 단결권이 아닌 헌법 제21조 결사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
- ㅁ.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바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법」 등 관련 법률이 구체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로소 인정될 수 있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ㄴ, ㄷ, ㄹ
- ④ ㄴ, ㄹ, ㅁ
- ⑤ ㄷ, ㄹ, ㅁ

15. 과잉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과잉금지의 원칙은 기본권 제한의 한계로서 헌법 제37조제2항과 법치주의원리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 ② 수단의 적합성은 해당 기본권 제한조치가 목적의 달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목적을 달성하는데 유일한 수단일 필요는 없다.
- ③ 기본권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기본권 행사의 방법을 통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기본권 행사여부에 대한 규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반된다.
- ④ 법익의 균형성이란 기본권 제한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크거나 혹은 적어도 양자간에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⑤ 직업선택의 자유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객관적 사유에 따라 직업에의 접근을 제한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치를 통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주관적 사유에 따라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여야 한다.

16.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 제72조는 국민투표의 대상을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이라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의 대상인 중요정책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이때 국민투표의 대상인 중요정책에는 대통령에 대한 신임이 포함되지 않는다.
- ②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해당하지 않는 죄를 범한 때에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지만 국회에 의해 탄핵 소추를 받을 수 있다.
- ③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중 3인만 임명할 수 있다.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가,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헌법재판관이 된다.
- ④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으며,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17. 국회의 입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의장은 안전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소관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 ② 민주주의원칙의 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헌법상 권한으로서 국회 다수와 의원뿐만 아니라 소수와 의원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모두 보장된다.
- ③ 국회부의장은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을 가결·선포할 수 있을 뿐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는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국회부의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피청구인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 자를 상대로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 ④ 국회의장이 국회의 위임 없이 법률안을 정리하더라도 그러한 정리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실질적 내용에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한 헌법이나 「국회법」상의 입법절차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⑤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헌법 제60조 상의 조약을 체결·비준한 경우,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은 대통령에 대하여 제3자 소송으로서 국회의 조약에 대한 체결·비준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18. 행복추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37조제1항에서 나오는 기본권이다.
- ②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 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 ③ 먹는샘물 제조업자에게 부과되는 수질개선부담금은 먹는샘물에 대한 선택권을 박탈하거나 봉쇄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에게 먹는샘물에 대한 원칙적 선택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가격 전가를 통하여 먹는샘물의 소비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하는 것에 그치고 있으므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④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모든 행위를 할 자유와 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로 가치있는 행동만 그 보호영역으로 하기에,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와 같은 위험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갈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⑤ 마약거래범죄자인 북한이탈주민을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은 마약거래범죄자인 북한이탈주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19.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일반 응시자와 달리 공무원의 근무연수 및 계급에 따라 행정사 자격시험의 제1차시험을 면제하거나 제1차시험의 전 과목과 제2차 시험의 일부과목을 면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 ③ 보훈보상 대상자의 부모에 대한 유족보상금 지급 시, 부모 중 수급 권자를 나이가 많은 1인에 한정하고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은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부모 일방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④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 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20. 경제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 제119조제2항의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에 대한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과세를 시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가 조세입법자에게 부과된다.
- ②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창고면적의 최소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 조항들은 국가의 중소기업 보호·육성 의무를 위반한다.
- ③ 헌법 제119조는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일반조항으로서 국가의 경제정책에 대한 하나의 헌법상 지침이 됨과 동시에 경제에 관한 기본권의 성질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독자적인 위헌심사의 기준이 될 수 있다.
- ④ 헌법 제119조제2항에 규정된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 이념은 경제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목표일 뿐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은 아니다.
- ⑤ 헌법 제119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경제적 자유와 창의’는 직업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근로3권과 같은 경제에 관한 기본권 및 비례의 원칙과 같은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비로소 헌법적으로 구체화된다.

한국사

1. ㉠ 유물이 등장한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78년 연천의 전곡리에서 ㉠이/가 처음 발견되었다. ㉠은/는 손에 쥐고 사용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① 갈돌과 갈판을 이용하였다.
- ② 빗살무늬토기를 사용하였다.
- ③ 반달돌칼을 이용하여 벼를 수확하였다.
- ④ 동굴, 바위 그늘, 강가의 막집에서 생활하였다.
- ⑤ 다른 씨족과의 혼인을 통해 부족사회를 형성하였다.

2. <보기>의 내용이 발생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보 기>—

- ㄱ. 노비추쇄법을 폐지하였다.
 ㄴ. 일부를 제외한 공노비를 해방하였다.
 ㄷ. 새로 태어난 노비 자녀에게 노비 세습을 금지하였다.
 ㄹ. 노비제가 법적으로 완전히 폐지되었다.
 ㅁ. 노비종모법이 시행되었다.

- ① ㄱ→ㄷ→ㄴ→ㄹ→ㅁ
- ② ㄱ→ㅁ→ㄴ→ㄷ→ㄹ
- ③ ㄱ→ㅁ→ㄴ→ㄹ→ㄷ
- ④ ㅁ→ㄱ→ㄴ→ㄷ→ㄹ
- ⑤ ㅁ→ㄱ→ㄷ→ㄴ→ㄹ

3. 삼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신성지역인 소도가 있었다.
 ㄴ. 제사 의식을 주관하는 천군이 있었다.
 ㄷ. 해마다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행사를 열었다.
 ㄹ. 소국의 지배자는 신지, 읍차 등으로 불렸다.
 ㅁ. 천군과 소도는 제정일치 사회임을 알려준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ㅁ
- ④ ㄴ, ㄹ, ㅁ
- ⑤ ㄷ, ㄹ, ㅁ

4. 다음 자료와 관련된 왕대의 사실로 옳은 것은?

(대왕대비가) 전지(傳旨)하기를, “사람들이 직전(職田)의 폐단이 있다고 많이 말하기에 대신에게 의논하니, 모두 말하기를, ‘우리나라 사대부의 봉록(俸祿)이 박하여 직전을 갑자기 혁파할 수 없다’ 하므로, 나도 또한 그렇게 여겼는데, 지금 들으니 조정 관원이 그 세(稅)를 지나치게 거두어 백성들이 심히 괴롭게 여긴다 한다. ……(중략)……” 하였다.

한명회 등이 아뢰기를, “직전의 세(稅)는 관에서 거두어 관에서 주면 이런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중략)……” 하였다. 전지하기를, “직전의 세는 소재지의 관리로 하여금 감독하여 거두어 주게 하고, 나쁜 쌀을 금하지 말며, 제향 아문(祭享衙門)의 관리는 금후로는 가려서 정하라” 하였다.

- 『조선왕조실록』 -

- ① 6조 직계제를 부활시켰다.
- ② 『삼강행실도』와 『효행록』을 간행하였다.
- ③ 국가의 경제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호패법을 실시하였다.
- ④ 여진을 정벌하고 4군 6진을 개척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
- ⑤ 집현전을 계승한 홍문관을 설치하고 경연을 활성화하였다.

5.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은/는 예부에 속하였는데, 신문왕 2년(682)에 설치하였다. 경덕왕이 태학감으로 고쳤으나 혜공왕이 옛 이름대로 하였다.

- 『삼국사기』 -

- ① 학업 기한은 일반적으로 9년이였다.
- ② 진골 귀족만이 입학할 수 있었다.
- ③ 당의 교육기관인 국자감을 참고하였다.
- ④ 관등이 대나마·나마에 이르면 내보냈다.
- ⑤ 박사(博士)와 조교(助教)가 교육을 담당하였다.

6.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편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늘에 가득한 별들이 각기 계(界) 아닌 것이 없다. 성계(星界)로부터 본다면, 지구 역시 하나의 별에 불과할 것이다.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계(界)들이 공중에 흩어져 있는데, 오직 이 지구만이 공교롭게 중앙에 위치해 있다는 것은 이럴 이치가 없다. 이렇기 때문에 계 아닌 것이 없고 자전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다른 계에서 보는 것도 역시 지구에서 보는 것과 같을 것이니, 다른 계에서 각기 저마다 중앙이라 한다면 각 성계(星界)가 모두 중계(中界)일 것이다.

- ① 『양반전』을 지어 양반의 허례와 무능을 풍자하였다.
- ② 지전설을 바탕으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였다.
- ③ 『우서』에서 사농공상의 평등과 전문화를 주장하였다.
- ④ 북한산 신라 진흥왕 순수비를 처음으로 고증하였다.
- ⑤ 『곽우록』에서 토지매매를 제한하는 한전제를 제시하였다.

7.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은/는 우리 동포의 열렬한 성원과 기대 속에 16일에는 경성중앙방송국을 통하여 준비위원의 자격으로 안재홍 씨가 마이크를 통하여 해방될 우리 민족에게 제1성을 보내었다.

- 『매일신보』 -

- ① 8·15 해방 이전에 결성되었다.
- ② ‘결정적 시기의 무장봉기’ 전술을 구상하였다.
- ③ 노농군 편성을 목적으로 군사위원회를 조직하였다.
- ④ 강령에서 조선민주공화국 건설을 목표로 내세웠다.
- ⑤ 미군 진주 시까지 치안 유지 활동 등을 수행하였다.

8. (가)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1945년 12월 (가) 결정을 둘러싸고 좌우의 대립은 격화되었다. 즉, 신탁통치에 반대하는 우익과 (가) 결정안에 찬성한 좌익이 대립하게 되어 결국 자주 독립의 통일 국가를 수립하지 못한 채 민족 분단의 길로 가게 되었다.

— <보 기> —

- ㄱ. 미·소 공동위원회의 설치
- ㄴ. 임시 민주주의 정부의 수립
- ㄷ. 조선의 완전한 독립을 저해하는 일체의 반동 세력 박멸
- ㄹ. 미·소 공동위원회와 임시정부는 최고 5년간의 신탁통치 협정 작성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9. (가), (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대마도) 도주에게는 해마다 쌀과 콩을 합하여 200석을 주기로 하였다. 세건선은 50척으로 하였다.

(나) 도주 세건선을 25척으로 감하고, 도주에게 내려준 세사미두 200석 중에 100석을 감하였다.

- ① 삼포왜란이 일어났다.
- ② 을묘왜변이 발발하였다.
- ③ 강화도조약이 체결되었다.
- ④ 백두산 정계비가 세워졌다.
- ⑤ 일본에 회답겸쇄환사가 파견되었다.

10. 밑줄 친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왕은 임금의 신민의 부모와 같다는 군부일체론(君父一體論)을 강조하였으며, 당과의 시비를 가리지 않고 어느 당파이든 온건하고 타협적인 인물을 등용하여 왕권에 순종시키는 데에 주력하였다. 또한, 기유처분(己酉處分)으로 노·소론 내 온건론자들을 고르게 등용해 초기의 탕평책의 기초를 마련하였는데, 이때 인사정책으로 쌍거호대(雙擧互對)의 방식을 취하였다.

- ① 대동법을 전국으로 확산시켰다.
- ② 창덕궁 안에 대보단을 설치하였다.
- ③ 재야 산림의 공론을 인정하지 않았다.
- ④ 대유둔전이라는 국영농장을 설치하였다.
- ⑤ 관료의 재교육을 위해 초계문신제를 시행하였다.

11. ㉡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이른 아침에 신라인이 작은 배를 타고 왔다. 문득 듣건대, “㉡이/가 신라 왕자와 공모하여 신라국을 정벌하고 곧 그 왕자를 신라국의 왕으로 삼았다”라고 하였다.
- 산 속에 절이 있어 그 이름은 적산법화원인데, 이는 ㉡이/가 처음 세운 것이다. 오랫동안 장전(莊田)을 갖고 있어 양식을 충당할 수 있었다.

- 『입당구법순례행기』 -

- ① 진성여왕에게 시무책을 바쳤다.
- ② 당에 건너가 빈공과에 합격하였다.
- ③ 당에 견당매물사와 교관선을 보냈다.
- ④ 나라를 세우고 국호를 장안이라 하였다.
- ⑤ 독자적으로 오월과 거란에 사신을 보냈다.

12. <보기>의 상소를 올린 인물의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일단 강화를 맺고 나면 적들이 욕심내는 것은 물화(物貨)를 교역하는 데에 있습니다. 저들의 물화는 대부분 지나치게 사치스럽고 기이한 노리개로, 손으로 만든 것이어서 한정이 없습니다. 반면 우리의 물화는 대부분 백성의 생명이 달린 것으로 땅에서 생산되어 한정이 있습니다. 이같이 피와 살이 되어 백성의 목숨이 걸려 있는 유한한 물화를 가지고 저들의 사치스럽고 기이하며 마음을 쯤먹고 풍속을 해치는 물화와 교환한다면, 해마다 그 양이 수만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면 몇 년 지나지 않아 동토(東土) 수천 리에 전답은 황폐해지고 집은 다 쓰러져 다시 보존하지 못하게 되고, 나라도 반드시 뒤따라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강화가 난리와 멸망을 부르는 까닭의 둘째 이유입니다.

- ① 대마도에서 옥중 순국하였다.
- ② 전북 태인의 무성서원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 ③ 연해주에서 13도 의군을 결성하여 도총재로 추대되었다.
- ④ 사헌부 장령에 임명되자 국정 개혁을 위한 상소를 올려 흥선대원군을 비판하였다.
- ⑤ 「청토오적소(請討五賊疏)」를 올려 을사조약 파기와 매국 오적 처단을 주장하였다.

13. 밑줄 친 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자년 여름 5월 유생 여러 명이 개경에서 내려와 보니 대사가 제자로 받아들여 머리를 깎고 『묘법연화경』을 가르쳐 통달하게 하였다. 임진년 4월 8일 대사가 처음 보현도량을 결성하고 법화삼매를 수행하여, 극락정토에 왕생하기를 구하였는데, 모두 천태삼매의(天台三昧儀)를 그대로 따랐다. 오랫동안 법화참(法華懺)을 수행하고 전후에 권하여 발심(發心)시켜 이 경을 외우도록 하여 외운 자가 1천여 명이나 되었다.

- ① 백련결사를 주도하였다.
- ② 『천태사교의』를 저술하였다.
- ③ 정혜쌍수를 교리로 강조하였다.
- ④ 귀법사의 초대 주지를 역임하였다.
- ⑤ 광종 시기 불교 개혁을 주도하였다.

14.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편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금 들으니 원나라 조정에서 우리나라에 행정(行省)을 설치하여 중국의 다른 지방과 같은 행정 구역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의 공로는 막론하고라도 세조(世祖) 황제의 조서(詔書)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중략)…… 폐하의 조서는 실로 온 세상 사람의 복인데 유독 우리나라의 일에 대해서만 세조 황제의 조서를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략)……
- 『고려사』 -

- ① 국학 진흥을 위해 섬학전을 설치하였다.
- ② 9재 학당을 건립하여 후진을 양성하였다.
- ③ 원의 수도에 세워진 만권당에서 활동하였다.
- ④ 단군의 건국 이야기를 『삼국유사』에 수록하였다.
- ⑤ 성리학을 연구하여 ‘동방 이학(理學)의 조(祖)’라고 불렸다.

15.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갑인일에 일본 천황이 중궁에 나갔는데, 발해 사신 고제덕 등이 (가)의 교서와 방물을 바쳤다. ……(중략)…… “(가)은/는 대국(大國)을 맡아 외람되게 여러 번(蕃)을 함부로 총괄하며,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 부여의 습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너무 멀어 길이 막히고 끊어졌습니다. 어진 이와 가까이하며 우호를 맺고 옛날의 예에 맞추어 사신을 보내어 이웃을 찾는 것이 오늘에야 비릇하게 되었습니다” ……(하략)…… 발해 사신 고제덕 등에게 잔치를 베풀고 활쏘기 대회와 아악료(雅樂寮)의 음악을 내렸다.

- 『속일본기』 -

- <보 기>————
- ㄱ. 수도를 중경현덕부에서 상경용천부로 옮겼다.
 - ㄴ. 대문예로 하여금 흑수말갈을 공격하게 하였다.
 - ㄷ. 산둥지방의 덩저우에 수군을 보내어 당을 공격하였다.
 - ㄹ. 불교의 전륜성왕 이념을 이용해 왕권강화를 도모하였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6. (가)와 (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나)	
	↑	↑	↑
	중일전쟁 발발	진주만 기습	조국의 광복

- ① (가) - 국가총동원법 제정
- ② (가) - 가격 등 통제령 제정
- ③ (나) - 학도지원병제 실시
- ④ (나) - 여자정신대근로령 공포
- ⑤ (나) - 육군특별지원병령 공포

17. ㉠ 단체의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은/는 이에 제1차의 전쟁사를 세상에 공개하노니 이는 결코 과장의 의미에서 나온 것도 아니요, 또한 이것을 선전의 재료로 삼자는 바도 아니다. 다만,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피력하여 한국 삼천만 인민이 모든 굴욕을 받으며 분투해 온 간난신고를 읊소하여 세간의 인도주의자들의 공론을 구하고, 아울러 이로써 살얼음 위를 걷는 것 같은 위험에 처해 있는 중화민족에게 다소나마 참고와 도움이 된다면 다행일 뿐이다. ……(중략)…… 그러므로 우리 한국은 한국을 위하여 광복을 꾀하려고 하면 반드시 먼저 중국을 구해야 하고, 중국을 위하여 광복을 꾀함에도 한국은 또한 중국을 구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입이 닳도록 애원하며 우리 한·중 양국 동지에게 다 같이 각성하여 전장에 목숨을 함께 바치자는 까닭이다.

- ① 김지섭이 일왕의 궁성으로 들어가는 니주바시에 폭탄을 던졌다.
- ② 상하이사변 직후 일본 이즈모호를 폭파하기로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 ③ 이덕주는 조선총독부 총독을 저격하고자 계획했으나 사전에 체포되어 실패하였다.
- ④ 이봉창은 도쿄에서 일왕 히로히토를 향해 수류탄을 던졌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 ⑤ 윤봉길이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일왕 탄생 축하 행사 겸 전승 축하식장에 폭탄을 던졌다.

18. ㉠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에서 위는 천지의 신에게 묻고 아래로는 동포형제와 상의하여 드디어 하나의 모임을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에서 발기한다. 그 이름을 ㉠라고/이라고 한다. ㉠은/는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가. 완고하고 부패한 국민 생활을 개혁할 새로운 사상이 시급히 필요하며, 우둔한 국민을 깨우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이 시급히 필요하고, 식어 버린 뜨거운 마음을 다시 살리기 위해 새로운 제창이 시급히 필요하며, 쇠약해진 원기를 북돋울 새로운 보양이 시급히 필요하고, 타락한 도덕을 되살릴 새로운 윤리가 시급히 필요하며, 쇠퇴한 문화를 부흥시킬 새로운 학술이 시급히 필요하고, 미약한 산업을 일으킬 새로운 모범이 시급히 필요하며, 부패한 정치를 일신할 새로운 개혁이 필요하다.

- ① 외곽단체로 청년학우회를 만들었다.
- ② 대성학교, 오산학교 등을 설립하였다.
- ③ 기관지로 잡지 『서우』를 간행하였다.
- ④ 자기회사, 소방직공장, 소연초공장 등을 설립하였다.
- ⑤ 학술 간행 단체인 조선광문회와 서점인 태극서관을 만들었다.

19. ㉠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최우가 자신의 집에 ㉠을/를 두고 백관의 인사를 다루었는데 문사를 뽑아 이에 속하게 하고 필자적(必者赤)이라 불렀다. 옛 제도에는 이부는 문신 인사를, 병부는 무신 인사를 관장하였는데, 근무 연한의 순서를 정하여 관리의 근면함과 태만함, 공과, 재능이 있고 없음을 논한 후 모두 문서에 기재한 것을 정안(政案)이라 하였다. ……(중략)…… 정권을 마음대로 하면서부터 관부와 관료를 두고 사사로이 정안을 취하여 관직을 제수하였다.

- 『고려사』 -

- ① 을묘왜변을 계기로 설치되었다.
- ② 공민왕의 개혁으로 일시 폐지되었다.
- ③ 간쟁, 서경, 봉박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 ④ 원 간섭기에 도평의사사로 명칭이 바뀌었다.
- ⑤ 진도, 제주도로 옮겨가며 조정에 대항하였다.

20. 다음 자료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은?

11일 상오 11시 30분경 마산 중앙부두 앞바다에서 오른쪽 눈에 파편이 박힌 17, 8세의 학생풍 변사체가 발견되어, 3·15 사건 이후 행방불명자를 못 찾고 있던 당지 시민들을 긴장시켰다. 시체는 낚시꾼에 의하여 발견되어 경찰에 신고된 것인데 ……(하략)……

- 『매일신보』 -

- ① 한·일 학생 간 충돌이 있었다.
- ② 신군부가 비상계엄을 확대하였다.
- ③ 일부 국회의원들은 사사오입 개헌을 비판하였다.
- ④ 정·부통령 부정선거에 학생, 시민들이 항의하였다.
- ⑤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학생, 시민들의 시위가 있었다.

행정법총론

1.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구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의원개설신고에 대하여 신고필증의 교부가 없다면 그 신고의 효력은 부정된다.
- ② 「건축법」상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그렇지 않은 건축신고와는 달리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 ③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의 개설 등록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해당한다.
- ④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는 근로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권 행사를 보장하는 것에 취지가 있으므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해당한다.
- ⑤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행정기본법」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다.

2.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 ② 「2014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은 「건축법」 및 지방세법령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 ③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 그 글자의 크기를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내로 제한하는 구 「의료법 시행규칙」의 규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 ④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⑤ 보건복지부 고시인 구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는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국민건강보험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등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3.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구 「국세징수법」에 의한 가산금의 납부독촉에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② 건설업면허증 및 건설업면허수첩의 재교부는 종전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과 동일한 내용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을 새로이 또는 교체하여 발급하여 주는 것으로서 공증행위이다.
- ③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국가귀속결정은 당해 재산이 친일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이른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진다.
- ④ 준공검사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 ⑤ 구 「상표법」에 따른 특허청장의 상표사용권설정등록행위는 사인간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다.

4.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수도용 자재를 생산하는 甲은 「수도법」에 따른 정기검사를 기피하여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받았다.

- ① 甲이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② 甲의 기피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의 존재가 요구된다.
- ③ 甲의 기피시점과 과태료 부과시점 사이에 「수도법」이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상한선이 300만 원으로 조정된 경우 과태료 500만 원의 부과는 적법하다.
- ④ 甲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甲의 연령·재산상태·환경이 고려되어야 한다.
- ⑤ 甲에 대한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5. 다음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사업인정은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이다.
- ㄴ. 토지소유자가 보상금 증액을 구할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 ㄷ.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수용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ㄹ. 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 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는 이를 반영하여 산정해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6. 「행정절차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절차법령에서 ‘학교·연수원 등에서 교육·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연수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을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로 규정하나, 육군3사관학교 생도에 대한 퇴학처분과 같이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처분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② 육군3사관학교의 사관생도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징계심의대상자가 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 심의에 출석하여 진술하려고 하였음에도 징계권자가 변호사가 심의에 출석하는 것을 막았다면 그 징계의결에 따른 징계처분은 위법하다.
- ③ 지방병무청장이 「병역법」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 한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처분은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항인 ‘「병역법」에 의한 소집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군인사법령에 의하여 진급예정자명단에 포함된 자에 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진급선발을 취소하는 처분을 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 ⑤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행정절차법령에 의하여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7.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자연도 등급권역을 변경한 결정에 대하여 인근 주민은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 ② 경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경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면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기존의 업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리할 것이므로 기존의 업자가 그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이익은 없다.
- ③ 국가는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건축협약의 거부행위에 대하여 법적 분쟁을 해결할 실효적인 다른 법적 수단이 없는 경우 허가권자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통해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④ 교육부장관이 甲 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乙 학교법인의 이사를 선임한 처분에 대하여 甲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전국대학노동조합 甲 대학교지부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⑤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여러 사람이 경원관계에 있어서 한 사람에 대한 허가처분이 다른 사람에 대한 불허가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때 허가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8. 다음 중 취소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제재처분의 전력이 장래의 제재처분의 가중요건이 되는 사안에서 효력이 소멸된 제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 ㄴ. 과세처분이 있는 후 증액경정처분이 있었는데, 당초의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 ㄷ. 거부처분이 재결에 의해 취소된 사안에서 재결에 따른 후속처분이 아니라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 ㄹ. 처분의 취소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여 취소를 구하는 경우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 ⑤ ㄱ, ㄷ, ㄹ

9. 무효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무효확인소송의 제기요건으로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
- ② 무효확인판결은 기속력이 있고, 판결의 제3자효가 인정된다.
- ③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④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판결시까지 행정청이 그 신청에 대하여 적극 또는 소극의 처분을 함으로써 부작위상태가 해소된 때에는 소의 이익을 상실하게 된다.
- ⑤ 무효확인소송에서는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

10.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은 이에 기속되어 그와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된다.
- ② 행정심판 청구기간의 요건은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③ 행정심판에서의 가구제 제도로서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라도 이용할 수 있다.
- ④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⑤ 행정심판 제기에 있어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청구인을 경정할 수 있다.

11. 행정소송에서의 법률상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 ② 「출입국관리법」의 해석상 외국인에게는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③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행위,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갖지 않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 고시인 구「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의 개정으로 인하여 자신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다.
- ④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당시 또는 시정절차 진행 도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 기간제근로자는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소멸한다.
- ⑤ 법인의 주주가 법인에 대한 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수리처분 이후의 주식 양수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직접적·구체적 이익을 가지지 않는다.

12.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따라 차고지확보 의무규정을 충족하기 위하여 乙이 경영하는 주차장을 계약하여 자동차운수사업면허조건을 충족하여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였다. 그러나 A시는 이후 사정이 변경되어 甲이 계약을 하였던 乙의 주차장이 폐쇄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채 차고지 없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계속하였던 甲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 ㄱ. 개인택시사업운송사업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재량행위이다.
- 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 ㄷ.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 법원은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

- ① $\neg$ ② $\perp$ ③ $\sqsubset$
④ $\neg, \perp$ ⑤ $\perp, \sqsubset$

13. 다음 중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제도가 인정되는 소송을 모두 고르면?

- ㄱ. 취소소송 나. 무효확인소송
ㄴ. 부작위위법 확인소송 르. 당사자소송

- ① $\neg$
- ② $\neg, \perp$
- ③ $\perp, \sqsubset$
- ④ $\neg, \perp, \sqsubset$
- ⑤ $\neg, \perp, \sqsubset$

14.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관계 법령상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 ② 도시공원시설인 매점의 점유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매점으로부터 퇴거하고 이에 부수하여 그 판매 시설물 및 상품을 반출해야 할 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이어서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 ③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을 고지한 후 원고들이 불응하자 다시 2차 계고서를 발송한 경우 제2차의 계고가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
- ④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의 취소사유인 하자는 후행처분인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에 승계된다.
- ⑤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철거의무자인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15.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사후에 변경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 ② 「지방세법」에서 정한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기술진흥단체’인지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 내부부장관이 비과세 의견으로 회신한 경우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
- ③ 당초 정구장 시설을 설치한다는 도시계획결정을 하였다가 정구장 대신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한다는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한 경우 당초의 도시계획결정만으로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받게 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할 수 없다.
- ④ 재건축조합에서 일단 내부 규범이 정립되면 조합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존속하리라는 신뢰를 가지게 되므로, 내부 규범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을 통해 달성하려는 이익이 종전 내부 규범의 존속을 신뢰한 조합원들의 이익보다 우월해야 한다.
- ⑤ 종교법인이 도시계획구역 내 생산녹지로 답(沓)인 토지에 대하여 종교회관 건립을 이용목적으로 하는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으면서 담당공무원이 관련 법규상 허용된다 하여 이를 신뢰하고 건축준비를 하였으나 그 후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사유를 들어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불허가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16. 인허가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A법률에서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B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 주된 인허가가 있더라도 B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한 B법률의 모든 규정들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② 건설부장관이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승인을 하였다면 그와 별도로 주민의 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 ③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 승인을 하는 경우 모든 인허가의제 사항에 관하여 사전협의를 거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시행승인 후 인허가의제 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면 그때 해당 인허가가 의제된다고 본다.
- ④ 건축불허가처분의 사유로 건축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형질변경 불허가 사유가 제시된 경우 그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과 별개로 형질변경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⑤ 이른바 부분 인허가의제의 경우 주된 인허가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에 하자가 있음을 다투고자 할 때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할 것이 아니라 주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17.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약사법령에 의한 허가사항 변경허가에 있어서 소관 행정청은 그 허가신청이 위 법령의 요건에 합치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하고 공익상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그 허가 여부는 기속재량에 속한다.
- ② 공유수면 점용허가는 공유수면 관리청이 공공 위해의 예방 경감과 공공 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자유재량에 의하여 허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③ 구 「식품위생법」상 대중음식점영업허가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그 허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 ④ 토지형질변경허가는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금지요건의 판단에 행정청의 재량이 있기 때문에 토지형질 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재량행위에 속한다.
- ⑤ 공무원 임용을 위한 면접전형에서 임용신청자의 능력이나 적격성 등에 관한 판단은 면접위원의 고도의 교양과 학식,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면접위원의 재량에 속한다.

18.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상대방이 그 내용을 현실적으로 양지할 필요까지는 없고 다만 양지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짐으로써 충분하다.
- ②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 ③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 ④ 「행정절차법」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고의 방법에 의한 송달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⑤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 및 우편송달에 있어서 반드시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

1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보공개청구권자인 ‘모든 국민’에는 자연인 외에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된다.
- ②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 청구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다.
- ④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는 정보공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무원의 직무집행상의 과실이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인이 통상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을 말한다.
- ② 변호인의 접견신청을 허용하지 않고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접견 불허결정을 한 국가정보원 소속 수사관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③ 특별송달우편물의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우편집배원으로서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 정본에 대하여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 실현에 장애를 초래하여 당사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④ 어떠한 행정처분이 잘못된 법령해석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한다.
- ⑤ 등기신청의 첨부서면으로 제출한 판결서의 일부 기재사항 및 기재 형식이 일반적인 판결서의 작성방식과 다른 경우에 담당등기관이 자세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